

데스크 시각

세월호 1년, 이젠 희망을 인양하자



송기봉 사회2부장

다시 4월이다. 14일 아침 울돌목을 가로지르는 진도대교를 건너 팽목항까지 가는 18번 국도에는 간밤에 내린 비에 떨어진 빗물결이 하얗게 깔려 있었다. 굳이 길을 묻지 않아도 도로변에 세워진 노란 빛깔 깃발과 리본이 항구 방향으로 차 머리를 이끌었다. 아름답지만 되려 아프고, 처연한 느낌을 안겨주는 길이다.

광주에서 2시간30분 만에 도착한 팽목항 방파제에는 무수한 노란 깃발과 리본들이 남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나부꼈다. 남도 특유의 전통적인 멋과 흥이 넘실대는 진도땅 끝자락에 짙은 슬픔이 가득했다.

하루 뒤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꼭 1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4월 16일, 인천에서 출항한 제주행 여객선이 불살이 거칠기로 유명한 맹골수도(孟骨水道) 병풍도 인근 해상에

서 전복돼 침몰하는 모습을 TV 생중계로 지켜볼 당시만 해도 누구든 사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을 것이다. '역사에 만약(if)이란 없다'고 하지만 당시 긴박한 침몰상황에서 국가의 시스템이 일부나마 제대로 작동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아직도 진상규명은 요원

결국 빗발과 유체가 만개한 제주도로 3박4일간의 수학여행을 떠난 꽃다운 나이의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해 304명이 목숨을 잃었고, 7개월간 지속된 수색작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9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방한 때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3월 중순 로마교황청을 방문한 한국 주교들에게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 되었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1주년을 맞은 현재 무엇이 얼마나 바뀌고 달라졌는가?

참사 이후 선체 내에 갇힌 승객과 학생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해양경찰은 해체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로 개편됐고 '세월호'를 책임졌던 선장과 선원도 법의 단죄를 받았다. 그러나 부처별로 많은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장성 요양원 화재 등 안전사고는 잇따라 발생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참척'(慘劫)이라고 표현한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웁직이지 말라고 방송한 선장이나 선원도 그렇고, 한 시간 넘게 구조요청을 했는데도 왜 해경이 안 구했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진도 관제센터가, 정부가, 청와대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유족들은 알아야죠." (세월호 유가족 육성기록 '금요일엔 돌아오렴'에 실린 신승희 학생 어머니 진문조사위 이야기 중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과정에서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약속했던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은 제자리 걸음이다.

선체 인양 후 반면교사로

지난 1월에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는 3월 말 특별조사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내놓아 분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부는 16일 차관회의를 열고 특별법 시행령을 강행할지, 수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또 정부는 최근 수심 44m 깊이에 가라앉은 '세월호' 선체인양을 전항적으로 검

토하고 있다고 한다. 보수진영은 선체 인양을 두고 "원형 보존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추가 희생이 우려된다"는 '3불가론'을 내세워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선체 인양은 진실규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다. 코리아 리서치가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77.2%가 선체 인양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의 다수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것은 참사의 아픔을 망각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참사 이전과 다른 한국 사회를 만들어야 하며,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한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팽목항 방파제 입구에서 빨간 등대까지 200여m 구간에 설치된 '세월호 진실을 인양하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과 4650여 명의 소망이 담긴 자그마한 타일벽화를 하나하나 살펴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팽목항 세월호 분향소 내부 제단에 모셔진 옛날 학생들의 영정사진 역시 망연자실하게 하였다. 하늘의 별이 돼 봄 소풍을 즐기기를 비는 마음으로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영전에 올렸다.

작은 물고기를 매단 풍경(風景)이 바람에 흔들리며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song@kwangju.co.kr

社說

세월호 겪고도 해상안전 달라진 게 없구나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전남지역 해상안전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해양경비안전서가 운영하는 출장소는 해경 1인이 근무하는 '나홀로'가 대부분이며, 구조장비도 턱없이 부족해 해상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서해해안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남 도내 도서·연안에 설치된 출장소 32개 소 가운데 30개 소가 1인이 근무하는 체제라고 한다. 출장소 직원은 보통 24시간에서 많게는 92시간까지 근무하고 있어 안전업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근무자는 해난구조 뿐만 아니라 유람선, 어선, 낚시배 등 선박 임찰업무까지 맡고 있는 탓에 운항 전 안전 점검 등은 불가능한 형편이다.

장비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32개 출장소 중 30개 소가 구조장비인 구조정을 보유하지 못해 인근 해역에서 사고 발생 시 현장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직원들은 어선을 빌려 타고 거거나

해경에서 출동할 때까지 발만 굴러야 한다는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0월 30일 발생한 신안 흥도 유람선 좌초 사고 당시 파출소 내 근무 직원은 구조장이 없어 1t짜리 어선을 빌려 타고 주민들과 함께 사고 수습을 했었다. 중국 어선들의 침범이 잦은 거기도 역시 '나홀로 출장소'로 운영되는 데다, 사고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고우 해안경찰 해후 지난 2월부터 전남지역 출장소 19곳을 폐쇄시켜 해상사고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구호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해경의 구조 역량 강화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최일선의 인력과 장비 보장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안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화를 부르게 될 것이다.

호남예술제 60년, 이제 '문화백년'으로...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인 호남예술제가 올해로 창설 6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56년 광주일보 전신인 옛 전남일보에 의해 탄생된 호남예술제는 그간 참여 인원만 56만 명이 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

돌이켜 보면 호남예술제의 역사는 광주·전남의 역사다. 변변한 문화공연이 드물었던 1970년대까지 호남예술제는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예술의 향기를 퍼뜨리는 거점 역할을 했다. 호남예술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이를 반증한다.

창설 첫해인 6월13일부터 3일간 동방극장(옛 무등극장)과 서석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행사는 무용, 글짓기 등 5개 분야에 참가자는 10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개막식에는 10만 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공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시가행진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말 그대로 예술 꿈나무들의 잔치뿐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축제였던 것이다.

또한, 호남예술제는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인재 양성의 산실이었다. 호남예술제를 통해 예술적 기량을 쌓은 인재들은 국내외 무대를 누비는 예술가로, 또는 인재들을 키우는 교육자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나무 사진으로 유명한 여수 출신 사진작가 배병우를 비롯해 바이올리니스트 김남윤씨 등이 호남예술제 출신이다.

술에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통해 아시아의 문화수도도 비상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다. 따라서 광주가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열린 제1회 행사는 무용, 글짓기 등 5개 분야에 참가자는 1000여 명에 달했다. 특히 개막식에는 10만 여 명의 인파가 몰렸고, 옛 전남도청 앞에서 광주공설 운동장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시가행진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은편칼럼

'없지만 있는 그곳' 꿈을 향해...



김창균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사

바라보던 시절을 잊지 않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루카치가 고백했듯이,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흰히 밝혀 주던 시대는 얼마나 황홀했는지'를 상상해 본다. 너무도 아름답고 시적인 영감으로 가득찬 이 말에 담긴 심오한 의미는 차치하더라도,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름답다는 기억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할 것이다. 기억이 있는 한 언젠가는 그 별을 가까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에.

지난 9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4·16 이후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념 토론회가 있었다. 발제자로 나선 전남대 박구용 교수의 발표를 들으며 오래전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최근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바라보며 나는 별자리를 생각한다. 암울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캄캄한 사회, 거기에서 갖가지 이름의 별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별자리를 만들어 낸다. 까만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별자리, 나는 거기에서 미래의 희망을 본다.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사체, 그것은 별자리를 닮았다." -진중권, '시칠리아의 암소'

이질성을 함의(含意)하는 시민사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 의지(별)들의 장발성 연대(별자리 형성)가 필요함을, 그리고 다양한 별자리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조금씩 나아가야 함을 생각해 본다. 그러나 '없지만 있는 그곳'을 향한 꿈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4·16 이후 절망의 벽을 허무는 소중한 단초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의 실천적 과제는 무엇일까, 각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조율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부하는 교사들이 넘쳐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록 현행의 평가와 인정 체계가 대부분의 교사들을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문제가 있지만, 교사들은 하나의 나침반으로 한 곳을 향해서 질주하면서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협력하며 공생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룰배반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교사들에게 수업권과 평가권을 환원해야

겠지만, 우선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사의 삶을 중요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때를 맞추어 시교육청에서는 '300수업 나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와 협력 기반의 교사 학습 공동체 속에서 교사의 배움과 성장이 발현될 수 있는 수업 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이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교육, 교사가 가르침의 주체가 아니라 배움의 주체가 되는 교육'이다. 교사의 자발성과 집단 지성을 통해, 배움을 더하고 감동을 나누는 성장 스토리를 공유하는 것이다.

낙화와 신록이 혼재한 계절, '4월은 갈아엎는 달'이라 했던 신동엽이 떠오른다. 자발성에 기반을 둔 '300수업 나눔' 운동이 교원의 자기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학생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되돌려주는 여건을 수업 현장에서 만들어가는 소중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전남쌀 해법 수출에 길이 있다



조기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 양곡자재단 차장

이러한 상황은 전남지역 뿐만 아니라 쌀 생산량이 많은 전복과 충남도 비슷한 실정이다. 이 3개 지역의 남은 쌀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수도권 시장에서 쌀을 팔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비지에서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기준은 대체적으로 품질과 가격을 꼽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남쌀의 품질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쌀에 전남쌀이 12년 연속 최다 선정되는 등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 보이고 있다.

품질면에서 탁월한 전남쌀은 가격경쟁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하다.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은 타지역에 비해 많은 물류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가격경쟁을 위해서는 마진을 줄여야 하는데 최근 낮은 쌀값을 감안한다면 여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렵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불리한 조건만 맞고 있을 것인가.

전남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야한다. 필자는 그 해법을 수출에서 길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전남 일부 지역에서 적은량의 쌀이 수출된 사례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지속가능한 쌀 수출을 위해서는 개별 업체에 맡겨둘 게 아니라 바이어와 건담회 주선장구를 신설하는 등 쌀 수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농협은 지난 2월 해남 육전농협미곡처리장에서 '한눈에 반한쌀' 등 5t을 영국에 수출하는 출하식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남쌀 수출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년이면 수입쌀 시장개방 첫해여서 그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

정부는 수입쌀 시장을 개방하면서 국산 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쌀 수출에 대해서도 자유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외국 쌀 수입을 막으면서 규제해온 국산 쌀 수출에 대해 '수출추진제' 등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

정을 입법예고 했다.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수입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 상황에서 쌀 수출에 조금이라도 제약이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히 없애 것도 국산쌀의 경쟁력 제고와 쌀 수출의 육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쌀시장을 보면 식생활 변화에 따라 쌀 소비량이 매년 2~3% 감소하고 있다. 수입쌀이 개방되었다고 당장 513%의 과관세율이 적용된 쌀이 수입되지 않겠지만 5% 저관세 의무수입물량(MMA)이 매년 41만t이 수입되고 있어 이 또한 국내 쌀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4년산 전국 쌀 생산량은 424만t으로 예상 수요량 400만t을 제외하면 24만t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쌀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다. 남아도는 전남 쌀 해법을 해외 시장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전남쌀 수출은 쌀 생산능가 보호는 물론 농도 전남의 자존심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길이다. 이제 전남쌀 수출을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Woo-eung-gu' (無等鼓) featuring a drum icon and text describing a festival or event.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